

“재난에 안전한 무주 만들자”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결의... 김성용 부단장 외 9명 우수대원 표창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결의대회 및 역량강화 교육이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이종배 단장과 단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자율방재단의 재난대비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책별 임무와 역할에 대해 교육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시상과 교육,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김성용 부단장(무주읍)과 이규홍(안성면), 최중구(설천면), 이우석(적상면) 대원과 최경서 대장(무풍면), 주영표 대원(부남면), 장비지원반 이진우 대원(무주읍) 구호반 이기섭 대원(무주읍), 수난구조대 윤학도 부대장(무풍면), 산악구조대 최길선 대장(설천면)이 주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어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이종배 단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자율방재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과 △재난발생 시 가장 먼저 수습을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 △역량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과 교육·훈련에 열심히 임할 것, △재난 없는 안전한 지역 만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결의대회 및 역량강화 교육이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이종배 단장과 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군수는 “이제는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규모와 피해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예방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여러분을 통해 안전한 무주가 실현되고 세계적인 으뜸관광지로

서의 명성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우석대 최승희 교수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임무, 활동사례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으며 전라북도교통연수원 김상원 강사가 교통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긴급재난 안전센터 운영

국립공원 최초 탐방객 대피 공간 제공

무주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지난 12일 국립공원 최초로 탐방객 긴급대피 공간 제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재난 안전센터를 덕유산 동영령에 설치했다.

동영령은(1,320m) 덕유산 중주구간(26.9km)의 중간 능선부로 끈돌라를 이용한 접근성과 장거리 산행으로 인한 탈진, 조난, 폭설로 인한 고립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매년 겨울철 구조활동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덕유산국립공원은 고지대 능선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조활동 시 탐방객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태양광을 활용한 긴급재난 안전센터를 제작·설치했다.

긴급재난 안전센터는 태양광 패널 300와트를 활용해 스마트폰 유무선 충전과 야간 조난사고 발생을 대비한

실내 LED 조명이 작동되며, 기상악화 시에도 태양광 배터리로 약 7일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AED)·구급약품·모포·햇팩 등이 비치된 무인 안전장비함을 운영하고, 최단시간 하산거리 안내와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매뉴얼 비치 및 낙뢰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안전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긴급재난 안전센터와 안전장비 등의 운영물품은 (주)한국전파기국과 거창군에서 후원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위중한 탐방시설과장은 “동영령에 설치된 긴급재난 안전센터로 인해 고지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기상황 시 이용을



무주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재난 안전센터를 덕유산 동영령에 설치했다.

위해 목적 외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수렵장 개설 운영

20일부터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나서

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 전체면적 780km² 중 수렵가능 면적은 야생동물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공익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115km²를 제외한 674km²다.

수렵 인원은 멧돼지 포획 가능여부에 따라 적색 145명, 청색 176명으로 분류하여 총 321명으로 설정했다.

군은 그동안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만이 확산되고 피해 보상금 지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년 농작물 수확기에 자체 피해방지단 30

명을 편성하여 개체수 조절에 나섰으나 증가하는 야생동물 개체수 대비 효과가 없다는 대다수 주민 의견에 따라 환경부 최종 승인을 거쳐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수렵기간 내 입산을 자제하고 산에 갈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입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렵장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지역자활센터 ‘담쟁이 카페’ 개업

진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원술)에서 운영하는 ‘담쟁이 카페’가 최근 개업했다.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담쟁이 카페는 진안초등학교 맞은편(구 담쟁이 설계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다.

진안군 자활기금과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존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해 오픈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이주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좋은 일터를 사용한 커피와 질 좋은 재료로 메뉴를 구성해 고객을 맞고 있다.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원술 센터장은 “담쟁이 카페가 저소득층 자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길 바라며, 기반을 닦아 건설한 자활기업으로 독립하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의정자문회의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는 13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원들과 자문위원 등 19명이 참석해 군정전반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정자문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진행해 온 각종 사업에 대한 민의를 전달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하면서 정책적인 제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환 의정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차 정례회는 한 해를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백운기 위원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장수군,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장수군청 산림복지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업기능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장수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산림청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주관한 제17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에서 장수군 산림복지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함양군 죽림리 산364 인근에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 8개 팀과 지방산림청 5개팀, 한국산림과학

고 1개팀 등 총 14개 팀이 출전해 벌채목 수집을 위한 가산집재장비의 설치·운용 능력을 겨뤘으며 장수군은 타워위더를 활용한 월등한 실력을 보여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수군 산림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임업기계운용원 패트론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숲가꾸기사업 산물수집목 150톤을 매각해 76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이달 12일부터는 매각부산물을 이용해 독거노인 등 44가구를 대상으로 뿔감 132톤을 지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건강체조발표회 자체평가 연찬회

보건사업담당자·주민대표 43명 발전방향 모색

진안군은 13일 보건사업 담당자와 주민대표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체조에 대한 자체평가와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연찬회를 가졌다.

군은 진안홍삼축제 기간인 지난달 19일 건강체조발표회 및 마이산건강걷기대회를 진행해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체조 분위기를 조성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연찬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축제의 주인인 주민대표가 함께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행사결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내년 행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 마을 전체주민이 참여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물론 건강체조발표회를 통해 주민 자존감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 등을 잘된 점으로 꼽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건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늘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를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